

파라과이

REPUBLIC of PARAGUAY



I. 일반개황

면적	407천 km ²	G D P	93억 달러(2006)
인구	6.0백만 명(2006)	1 인 당 GDP	1,556 달러(2006)
정치체제	공화제	통화단위	Guarani(G)
대외정책	경제중심외교	환율(달러당)	5,635.50(2006년 말)

-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접경하고 있음.
- 한반도의 2배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총인구는 약 6백만명임. 인구의 96%가 스페인 및 과라니 인디언 혼혈로 이루어져 있음. 공용어는 서반아어 및 과라니어이며, 국민의 대다수가 토착어인 과라니어를 병용하고 있음.
- 주요 산업은 농목축업이며, 경제력, 자본, 기술, 교육 등에서 여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비해 뒤져 있는 남미의 대표적 저소득 국가 중 하나임.

경제적 강점	경제적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대기성 차관 도입 이후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 안정과 성장 기조 회복 ·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정책 및 세수 확대 노력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04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농업국가로 기후와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주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에 취약

II. 경제분야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제성장률	3.8	4.1	2.9	4.0	4.1
재정수지 / GDP	-0.1	1.8	0.9	0.4	0.0
소비자물가상승률	14.2	4.3	6.8	9.6	7.5

자료 : IMF 및 EIU.

□ 경제성장세 회복

- 파라과이 경제는 국제 농산물 가격상승과 농산물 풍작 그리고 인접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회복 등 대외경제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3~06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대두, 면화 등 주요 농산물의 작황이 부진했던 2005년을 제외하고 4%대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함.
- 2007년 들어서도 대선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호조와 농산물 작황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와 비슷한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흑자 전환

- 재정수지는 경기침체 지속 및 세제개혁 지연 등에 따른 세수 부진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IMF 프로그램에 따른 긴축정책 및 세수확대 노력과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가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05~06년에도 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흑자규모는 축소되었음. 금년에도 세수증가를 상회하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는 균형(GDP의 0.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 유지

- 금융위기로 인해 과라니貨가 크게 평가절하됨에 따라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4년 이후 안정세로 전환되었음.
- 경제안정 회복과 과라니貨의 강세 전환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다시 한 자릿수 대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국내 유동성 증가로 9.6%까지 상승하였음.
- 금년 들어서도 국내 유동성 증가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팽창적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물가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라니貨의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금년 물가상승률은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전통적 농업국가로 기후와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파라과이는 전통적 농업국가로서 농업이 GDP의 23%, 고용인구의 30%, 총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기후조건에 따른 농산물 작황과 국제시세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주변국가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파라과이는 대 Mercosur 수출입이 각각 52%와 53%를 차지할 정도로 주변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
- 이로 인해 주변국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동국이 1998~2002년 동안 경기침체를 겪게 된 것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전연된 결과였음.

□ 농림수산자원 풍부

- 방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해 있으며, 지진, 대규모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없고, 수자원과 삼림자원도 풍부함.

□ 인적자원 개발 미흡

- 높은 문맹률, 낮은 취학률 등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및 효율적 정책부재로 전체 인구의 35%만이 초등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급인력 부족이 첨단산업분야의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신기술 도입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세 회복

- 정부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하에 비교적 착실히 국가개혁 정책(세제개혁안, 신세관법안, 공공금융기관 합병화안, 금융법 개정안 등)을 추진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 세수증가, 환율안정 등 제반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성장세도 회복하였음.

□ 금융시장 안정 회복

- 1990년대 초 적절한 규제 및 감독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5년 이후 14개 은행과 11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빈발하였음.
- 1997년에는 최대 상업은행인 Banco Union이 파산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내 3위 은행인 Banco Aleman이 불법 역외자금운영과 부실화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융위기가 재발하였음.
- 그러나 이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 강화와 정부의 경제구조개혁 그리고 수출호조로 인한 경제성장세 회복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폐소화 예금 비중이 증가(2002년 40% → 2005년 53%)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f
경 상 수 지	125	138	-22	-180	-73
경 상 수 지 / G D P	2.1	2.0	-0.3	-1.9	-0.6
상 품 수 지	-276	-245	-492	-1,000	-900
수 출	2,170	2,863	3,266	4,800	6,500
수 입	2,446	3,108	3,758	5,800	7,400
외 환 보 유 액	811	1,001	1,140	1,298	2,150
총 외 채 잔 액	3,202	3,433	3,289	3,358	3,404
총 외 채 잔 액 / G D P	53.0	49.4	44.0	36.0	30.3
D . S . R .	11.1	14.9	15.0	12.5	12.6

자료 : IMF, EIU 및 세계은행.

□ 수출입 증가세 지속

-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음. 2006년에는 시우단 텔 에스떼 등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증가로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48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7년 상반기 수출실적(재수출 제외)도 대두의 작황 호조와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재수출을 포함할 경우 2007년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내수 및 투자 증가로 인해 수입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2006년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5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7년 상반기 수입실적도 전년동기 대비 27.4%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전체로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지 적자 지속

-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내구성 소비재 및 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06년에는 경제 회

복과 고유가로 인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1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7년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9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축소 전망

- 상품수지가 적자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따이푸 수력발전소의 로얄티 수입과 해외근로자 송금유입으로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가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1% 내외의 소폭 적자에 그치고 있음.
- 2002~04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급감으로 경상수지가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5년 이후 다시 소폭 적자로 전환됨. 200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1.9%인 1.8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GDP의 0.6%인 0.7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

- 2006년 말 현재 외채규모는 GDP의 36%인 33.6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편이나, 단기외채는 이중 22%인 7.5억 달러로 동국의 수출(48억 달러)이나 외환보유액(13억 달러)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임.
- 총외채의 대부분이 공적외채이고, 공적외채의 2/3 정도가 세계은행, IDB 등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Ⅲ. 정치·사회분야

1. 정치 및 국제관계

□ 1993년 민정이양 이후에도 민주주의 제도 정착 및 발전 지체

- 1954년 쿠데타로 집권한 스트로에스네르 대통령이 8회 연속 35년간 장기집권하

였으나, 1989년 로드리게스 장군의 쿠데타로 브라질로 망명하였으며, 잔여임기인 1993년까지 로드리게스가 집권함.

- 1993년 5월 대선에서 와시모시 대통령의 당선으로 민정이양이 이루어졌으나, 와시모시 대통령과 군부 실력자인 오비에도 장군과의 권력다툼으로 정국불안이 지속됨.

□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정국불안 심화

- 1998년 5월 대선에서 오비에도파인 라울 쿠바스가 당선되어 오비에도 전 육군 참모총장(1996년 쿠데타 기도로 구금)의 전격 석방을 단행하였으나 집권당인 플로라도당(PC) 내부 및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야기함.
- 집권당내 아르하냐 부통령 계파는 야당(급진자유당(PLRA) 등)과 제휴하여 오비에도 장군의 재수감을 요구하였으며, 집권당내 양대 계파인 오비에도장군 계파와 아르가냐 부통령 계파는 국정 전방에서 대립함.
- 1999년 3월 23일 아르가냐 부통령이 무장 괴한에 의해 피살되자 암살 배후자로 오비에도 장군이 지목되고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하자 쿠바스 대통령이 사임 후 브라질로 망명하고 오비에도 장군도 아르헨티나로 망명함.
- 헌법에 의거 곤살레스 마치 상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야당과의 연립내각을 구성함. 한편 2000년 8월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급진자유당(PLRA)의 세사르 프랑코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야 대립과 여당내 각 계파간 분열 등으로 정국불안이 지속됨.

□ 두아르떼 푸르또스 정부 출범

- 2003년 4월 대선에서 와시모시 정권 당시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여당인 플로라도당(PC)의 두아르떼 푸르또스(Duarte Frutos)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월 15일 취임하였음.

-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은 최다 의석(하원 80석 중 37석, 상원 45석 중 16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함.
- 두아르떼 푸루또스 정부는 1993년 민정이양 이후 처음으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민간정부로서 IMF의 지원 하에 재정개혁, 법조개혁, 부패척결 등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음.

□ 대통령 중임 허용 개헌 포기

- 두아르떼 푸루또스 대통령 지지세력이 중임 발판 마련을 위해 현재 임기 5년의 단임제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여당내 반대파와 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국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결국 개헌 추진을 포기하였음.

□ 카톨릭 주교 출신의 야당 후보 루고의 당선 가능성 높아

- 2008년 4월 대선에서 카톨릭 신부 출신인 루고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됨. 극빈자 돕기와 부정부패 추방에 앞장섰던 루고 신부는 2006년 12월 주교와 신부라는 성직을 포기하고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선언함.
- 루고 신부는 파라과이 국내 극빈자와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루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어 2008년 대선에서 루고 신부의 승리와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의 관계 급진전

- MERCOSUR 회원국으로 주변국과는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무력분쟁 가능성은 희박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경제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면서 Mercosur 회원국으로서의 존속여부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두아르떼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증진을 적극 도모하면서 양국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고, 미국의 대남미 진출에 따른 역내 주도권 약화를 우려한 브라질과의 관계에는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격차와 치안불안 등 사회불안 상존

- 민주화 과정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제목소리 내기로 파업, 시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문맹률과 빈부격차, 부정부패의 만연(부패지수 세계 3위), 경찰력 미비로 인한 치안불안 심화 등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음.
- 특히,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부유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사건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치안불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무토지 농민들의 사유지 점거사태 빈발

- 무토지 농민들의 사유지 점거문제는 과거 식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토지 소유제로 인한 토지분배의 불균형(인구의 10%가 토지의 90% 소유)과 빈곤문제에서 비롯된 최대 사회문제로서 전국 각지에서 무토지 농민들의 사유지 점거사태가 계속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분야

<표 3>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O E C D	6 (2000.4)	7 (2003.6)	6 (2005.6)
S & P	SD (2003.2)	B- (2004.7)	B (2007.6)
Moody's	B2 (1998.7)	Caa1 (2003.4)	- -
I . C . R . G	107/140 (2006.10)	109/140 (2007.4)	111/140 (2007.10)
Euromoney	112/185 (2006.9)	109/185 (2007.3)	121/185 (2007.9)
I . I	102/173 (2006.9)	102/174 (2006.3)	103/174 (2007.9)

자료 : OECD, S&P, Moody's, Fitch., I.C.R.G, Euromoney, I.I.

1.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 양호

- 과거 중남미 외채위기 시기에도 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외채 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대만, 미국 등이 동국에 제공한 ODA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상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바 있음.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외환보유액은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인해 한 때 5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수출호조와 국제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대 등에 힘입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5억 달러로 2006년 말에 비해 8.5억 달러 정도가 증가하였음.
- D.S.R.이 11~13% 수준으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으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IMF의 대기성 차관을 도입해 놓고 있고, 수출호조 지속으로 외환보유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어서 조만간 외환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소폭 상승

- 파라과이는 1998년 이후 2003년 까지 정정불안과 금융불안, 농산물 국제시세 하락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세를 보여 왔음.
- 그러나, 2004년 이후 IMF, I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하에 비교적 착실히 국가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외환보유액 증가, 세수증가, 환율안정 등 제반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신용등급도 소폭 상승함.

□ IMF의 신규 대기성차관 도입

- 파라과이는 2003년 12월 2년 만기 65백만 SDR 규모의 IMF 대기성차관 (Stand-by loan)을 도입하고, IMF 지원하에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음.
- 2005년 12월 동 IMF 대기성 차관이 만료됨에 따라 파라과이 정부와 IMF는 신규 대기성차관 도입 협상을 추진해 왔고, 2006년 5월에는 IMF 이사회가 27개월 만기 50백만 SDR(약 75백만 달러) 규모의 신규 대기성차관 협정을 승인함.
- 파라과이는 2004~05년 동안에도 실제로 IMF 대기성 차관을 인출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대기성 차관도 위기 예방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실제 차관 인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IMF 대기성 차관 협약 체결에 따라 IMF와 정기적으로 협약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바, 투자자들에게 파라과이 경제가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파라과이의 대외신인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주요 ECA의 인수태도

미국 수은	단기 및 중기 인수 가능,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영국 ECGD	단기 인수 가능, 중기는 제한적 인수
독일 Hermes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자료 : D&B.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4년 6월 15일(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1973),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81), 투자보장협정(1992)

□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2004	2005	2006	주요 품목
수 출	38,360	51,271	68,205	전자, 섬유, 자동차
수 입	4,952	4,176	5,594	콩, 목재류

자료 : KOTIS, 한국무역통계

□ 경협관계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2백만 달러(수출 68백만 달러, 수입 5백만 달러)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6건 3,927천 달러에 불과함.

□ 전통적 우호선린관계 지속

-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투자진출 및 경제, 기술, 교육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한편, 1965년 한국의 농업이민을 수용한 이래 다수의 우리국민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국에 현재 6000명 내외의 우리나라 교민이 거주하고 있음.

V. 종합평가 의견

- 파라과이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하에 경제안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으로 경제 안정과 성장 기조를 회복하였음.
- 민주적 정통성에 하자가 없는 두아르떼 민간정부의 출범 이후 정국도 대체로 안정을 되찾았으며,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동국의 경제구조가 국제상품가격 변동에 다소 취약한 편이나, 거시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호조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외환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